

## 영문학의 길잡이

### 워즈워스와 코올리지

#### 1. 워즈워스와 코올리지: 좌절된 천재들의 만남

"우리는 그가 도착하는 광경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는 큰 길로 오지 않고,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길도 없는 풀밭을 가로질러 경충경충 뛰어내려왔다."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는 자신과 여동생 도로시(Dorothy)를 처음 방문한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한다. 워즈워스가 40 여년이 지난 다음에도 한 친구의 방문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만남의 의미가 그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말해준다. 그 만남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워즈워스 한 개인의 삶만이 아니었다. 워즈워스가 회고하는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자체가 영국낭만주의 운동의 시작과 끝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만남이 처음부터 이처럼 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이 프랑스혁명에 대한 지지자로서 기대와 좌절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770 년에 태어난 워즈워스는 조실부모하고(8 세에 어머니, 13 세에 아버지 사망) 친척집을 전전하다 앤 타이슨(Ann Tyson)이라는 후덕한 하숙집 여주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혹스헤드 문법학교(Hawkshead Grammar School)를 졸업한 후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의 세인트 존즈 컬리지(St. Johns College)에 입학한다. 그의 자전적 장시 『서곡』(*The Prelude*)에 따르면 그는 대학생활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처럼 성직이나 법률가라는 안정된 직업을 준비하는 대신 친구 로버트 조운즈(Robert Jones)와 함께 당시 혁명 1 주년을 맞아 축제분위기에 있던 프랑스로 도보여행을 떠난다. 이때 받은 깊은 인상으로 인해 워즈워스는 케임브리지를 간신히 졸업한 후 불어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간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워즈워스는 이때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과 만나는데, 하나는 훗날 캐롤라인(Caroline)이라는 워즈워스의 사생아를 낳은 외과의사의 딸 아네프 발롱(Annette Vallon)이며, 다른 하나는 그에게 프랑스혁명의 의의를 인식시키고 공화주의 이념을 전수한 마이클 보피(Michael Beaupuy)라는 혁명파 장교였다. 워즈워스가 프랑스로 건너가 배운 것은 불어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영원히 각인될 사랑과 혁명이었던 것이다.

워즈워스는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당대의 어떠한 개혁가들보다도 더 급진적인 정치관을 견지했다. 프랑스에서 귀국한 직후인 1793 년 초에 집필한 「랜다프 주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A Letter to the Bishop of Llandaff)」에서는 루이 16 세의 처형을 옹호하고, 다소간의 폭력은 자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논리를 개진한다. 이러한 과격성 때문에 이 문서는 결국 출판되지 못했지만 당시 워즈워스는 프랑스의 혁명 열기가 곧 영국에도 미쳐 자유롭고 평등한 지복천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프랑스혁명이 공포정치로 인해 피로 얼룩지고 나뵈레옹의 등장으로 자유, 평등, 박애의 이상이 새로운 정복전쟁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자 결정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워즈워스는 1795 년에 친구인 피니(Pinney)형제가 제공한 레이스다운 로지(Racedown Lodge)에 여동생 도로시(Dorothy)와 정착하는 것을 계기로 개혁가로서의 활동을 접고, 혁명의 실패가 가져온 충격과 좌절감을 달래며 일종의 은둔생활에 돌입한다. 워즈워스가 코울리지를 만난 것을 바로 이러한 은둔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한편 워즈워스보다 2 년 늦게 목사의 9 남 1 녀중 막내로 태어난 코울리지는 허트포드(Hertford)에 있는 '크라이스트 병원 예비학교'(Christ's Hospital Preparatory School)를 거쳐 워즈워스처럼 케임브리지 대학의 지저스 컬리지(Jesus College)에 입학했다. 학업보다 급진주의 정치에 더 매료되었던 워즈워스가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프랑스로 떠났던 것처럼 코울리지 역시 졸업 얼마 앞둔 시점에서 싸일러스 톰킨 콤버바흐(Silas Tomkyn Comberbache)라는 가명으로 군에 입대한다. 코울리지 같은 조숙한 천재에게 군 생활은 당연히 맞지 않았고, 형들의 노력으로 코울리지는 곧 민간인의 신분으로 되돌아오지만 결국 1794 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퇴하고 만다. 코울리지는 이때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던 로버트 싸우디(Robert Southey)를 만나는데, 이들은 전망없는 영국을 떠나 미국의 써스케하나강(Susquehanna River) 유역에 플라톤의 '공화국'과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유토피아적 계획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팬티쓰크라씨'(Pantisocracy)라고 명명된 이 이상적 공동체는 12 명의 지식인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그 구성원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노동에 종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명상과 토론, 창작에 전념하기로 되어 있었다. 워즈워스 못지않게 열렬한 프랑스혁명 지지자였던 코울리지에게는 이러한 공동체운동이야말로 프랑스혁명의 타락을 보상해 줄 대안이었고, 이를 위해 싸우디의 큰 처제인 사라 프리커(Sara Fricker)와 결혼할 만큼 이것의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

웨일즈(Wales)에 이러한 공동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디와 사이가 벌어진 코울리지는 1795 년에 브리스톨(Bristol)에서 당시의 정치와 종교에 관해 일련의 대중강연을 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자'라는 '오명'을 얻어가고 있었는데, 워즈워스가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때였고, 그가 한 눈에 알아본 워즈워스의 천재성은 코울리지로 하여금 싸우디가 아니라 워즈워스야 말로 평생의 정신적 동지이며, 정치보다는 문학이 그의 유토피아적 야심을 실현하는데 더 적합한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깨달음이 코울리지로 하여금 큰 길을 마다하고 울타리를 가로질러 한달음에 워즈워스 남매에게 달려가게 했던 것이다.

## 2.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 천재들의 협업과 영국낭만주의의 발생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과 문학적 재능을 확인한 두 천재는 곧바로 그들만의 지적 공동체를 건설한다. 팬티쓰크라씨를 함께 추진하던 토마스 풀(Thomas Poole)의 지원을 받아 썬머세트(Somerset)에 위치한 네더 스토위(Nether Stowey)에 농가를 얻어 살고있었던 코울리지는 그곳에서 4 마일 떨어진 알폭스덴(Alfoxden)이라는 곳에 집을 얻어 워즈워스 남매를 불러들인다. 이곳에서 워즈워스 남매와 코울리지는 밤낮을 가리지않고 정치와 문학, 철학에 대해 토론하고 창작에 몰두한다. 여기에는 찰즈 램(Charles Lamb)과 같은 문인, 존 텔웰(John Thelwell)과 같은 급진적 개혁가들도 때때로 찾아와 이들의 은둔생활에 참여했고, 그 때문에 이곳은 정부로부터 요주의 인물들의 집단적 거주지로 주목받게 되고 급기야 정부의 비밀감찰요원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1797 년과 1798 년에 걸친 이 시기는 두 시인에게 있어서 문학적 천재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발휘했던 "기적의 해(*annus mirabilis*)"였고, 그 결과 우리는 익명으로 출판된 그들의 『서정담시집』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써 영국의 낭만주의문학이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정담시집』의 출현을 낭만주의문학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시집에 실린 유명한 「서문(Preface)」 때문이다. 1798 년의 초판본에서는 「발문」(Advertisement)이라는 이름의 짙막한 글만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시집에 실린 작품들이 대부분 중간계급과 하층계급의 일상언어가 시적 쾌락을 주는데 얼마나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흥미있는 주제라면 어디에서라도 소재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시의 특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혹시 점잖은 독자들의 비위를 거스르더라도 양해를 바란다는 식의 겸손한 주장으로 출발했었다. 그러나 2 년 후, 이 시집에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재판을 찍게 되자

워즈워스는 자신을 이 시집의 유일한 저자로 밝히는 것은 물론 덧붙여진 두 번째 권은 완전히 자신의 시들로 채워 넣었고, 자신이 주도한 시적 실험을 체계적으로 옹호하는 「서문」을 붙이게 된다. 1802 년에 다시 한번 내용이 확충되어 완성되는 이 「서문」은 흔히 영국낭만주의운동의 선언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서문」에서는 조심스럽게 개진되던 저자의 실험이 새로운 시에 대한 강령으로 선포되는 것이다. 우선, 모든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이 스스로 넘쳐흐른 것(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이라는 정의로 시를 기존의 관습적 형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해방시켰으며, 그에 따라 시인도 뮤즈의 영감을 받아 페가수스(Pegasus)를 타고 상상의 세계를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 말을 하는 사람(Man speaking to men)”이며, 그들이 가장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고전에 대한 교양으로 풍성해진 유식한 문학언어가 아니라 농촌의 낮은 계층의 삶에 기반을 둔 언어, 즉 촌부의 일상어라는 것이다.

1802 년의 개정판에서는 시를 “모든 지식의 숨결이자 보다 섬세한 정신”으로, 시인을 “정열과 지식으로 인간 사회라는 광대한 제국을 통합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시와 시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문학 엘리뜨주의의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서문」으로 확립되는 시학의 핵심은 중산층 이하의 민중의 언어와 삶을 그들의 예술행위의 중심에 놓는 민주주의적 충동이었다. 이것은 매슈즈(William Mathews)와 같은 그의 친구와 개혁적 성향의 잡지를 창간하여 영국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도모하게 했던 워즈워스의 혁명적 정열, 그리고 친구이자 동서인 싸우디와 함께 현실적 유토피아인 팬티소크라씨를 추진했던 코울리지의 정치적 이상주의가 현실속에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학적 기획에 고스란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워즈워스와 코울리지가 『서정담시집』을 통하여 도모했던 문학적 실천은 흔히 말하듯 좌절된 정치에 대한 예술적 보상이 아니라 수년 전 출판된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만큼이나 폭발적 정치성을 내재한 언어 혁명이었다. 고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평민의 평범한 일상어가 체제논쟁의 도구가 될 만큼 효과적인 정치적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인간의 권리』였다면, 그들의 언어가 진지한 예술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적 언어가 될 수 있음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서정담시집』이라는 문학적 기획의 정치적 목적이었다. 워즈워스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마이클 보피가 가난에 찌든 소녀의

모습을 가리키며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움을 하는 이유다!(Tis against that /That we are fighting!)(『서곡』, 9 권 517-518 행)”라고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서정담시집』에 나오는 수많은 거지와 버림받은 여인들과 굶주린 어린이들은 도덕적 교화의 대상이나 미학적 묘사의 재료가 아니라 문학적 형상화를 통하여 그 인간적 존엄을 되찾아 줄 인간적 주체들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 낭만주의의 시발점인 『서정담시집』은 혁명이 좌절된 이후에도 그 명분을 잃지 않는 문학적 인권선언이라 할 만하다.

3. 워즈워스 -- “틴턴사원(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On Revisiting the Banks of the Wye during a Tour. July 13, 1798)”과 시적 자서전

『서정담시집』이 영국 낭만주의문학에서 갖는 기념비적 위치는 그것이 갖는 잠재적인 정치성 때문만은 물론 아니다. 코울리지가 『문학평전』(*Biographia Literaria*)에서 지적한대로 서문에서 표방한 언어실험이 정작 시집에 담겨있는 시편들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거니와 그것이 중하층민들에 대해 표시하는 인간적인 동정심과 도덕적 자의식은 토마스 그레이(Thomas Gray)의 “시골 묘지에서 쓰여진 애가(An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와 같은 18 세기 감상주의문학에서 이미 상당히 세련된 형태로 표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워즈워스가 「서문」에서 표방하는 새로운 시를 위한 문학적 실험은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서정담시집』 초판본의 시편들 중 가장 나중에 완성되어 마지막 순간에 편입된 “틴턴사원”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고 할 수 있다. “틴턴 사원”은 「서문」에서 주장되는 의식적인 문학적 실험과는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18 세기의 풍경시(Landscape Poems) 혹은 명상시(Meditative Poems)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그 안에 내재된 도덕적 자의식을 풍부한 감성으로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로부터 귀국한 1793 년이래 “틴턴사원”이 쓰여졌던 1798 년 여름까지 워즈워스가 한 사람의 혁명적 지식인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환희와 좌절의 경험, 그리고 그가 프랑스로부터 귀국한 직후 출판한 전통적 풍경묘사시 『저녁 산책』(*An Evening Walk*)과 『소묘』(*Descriptive Sketches*)이래 꾸준히 진행시켜온 문학적 훈련이 한데 어우러져 “틴턴사원”에서 하나의 독특한 시적 형식으로 확립되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훗날 우리가 낭만적 자아라고 부르게 된 독특한 시적 자아의 탄생을 목격하는 것이다.

“틴턴사원”은 시의 화자가 시의 초두에서 회고하는 지난 5년의 세월동안 실제 워즈워스가 닦아온 문학적 훈련의 결산이자 그가 겪은 도덕적 고뇌의 최종 결실로서 『서정담시집』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결산과 결실은 시적 자아의 성장기라는 개인적 신화의 형태로 형상화된다.

그 시절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픈 즐거움도 이젠 더 이상 없다.

그 모든 아찔한 환희도. 그러나 그렇다고

낙담하지 않는다. 슬퍼하지도, 불평하지도 않는다. 다른 선물들이

뒤이었기 때문에. 내가 잃은 것에 대한 것으로는 아주 충분한

보상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자연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철없는 젊은 시절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애에 관한 조용하고 슬픈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듣는 이를 정확하고 안정시키는 풍부한 힘을 가졌으면서도

가혹하거나 거슬리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는 느낀다.

고양된 생각들이 주는 기쁨으로 나를 설레게 하는 존재를.

(85-95 행)

5년의 시간차를 두고 워즈워스의 방문을 두 번 받는 틴턴사원의 아름다운 계곡은 일차적으로 워즈워스의 성장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워즈워스는 5년 전이나 변함없는 와이 계곡(Wye Valley)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읽어내며, 그 과거와 다른 현재를 인식한다. 그리고 그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낸 근본적인 원동력인 자연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상기시키는데, 우리가 워즈워스를 흔히 자연시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지 그가 호수의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시적 자아의 성장을 모성적 자연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워즈워스가 “틴턴사원”을 쓴 이래 그의 최대 걸작시 『서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시적 자아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과 자연의 진실을 꿰뚫는 시적 지혜를 가진 시인으로 키워지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이고, “틴턴사원”과 『서곡』같은 자서전적 시의 목적은 그러한 점을 자기 스스로와 대중에게 입증하는 것이었다. 워즈워스가 “틴턴사원”에서 주장하는 성장의 증거는 자신이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자연풍경 속에서 “인간적 삶의 조용하고 슬픈 음악소리(Still, sad music of humanity)”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들을 수 있다는 “인간적 삶의 조용하고 슬픈 음악소리”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워즈워스가 마이클 보피와 혁명의 의미를 토론하며 가졌던 인간애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흔히 말하듯 조용하고 슬픈 곡조는 워즈워스의 혁명에 대한 환멸과 정치적 체념을 암시하는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인간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틴턴사원”은 시적으로 답변할 뿐이며, 그 답변에 대한 해석은 온전하게 독자의 몫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워즈워스 자신도 그러한 질문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시적 답변이 설득력을 가지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틴턴사원”에서 시작된 자서전 기획이 『서곡』으로 이어져 평생동안 시인의 손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자신의 시적 주장에 대한 자의식적 고민의 깊이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사실상 자연의 풍경에서 역사적, 인간적, 도덕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풍경묘사시(Topographical Poems), 혹은 자연을 매개로 한 명상시(Meditative Poems)의 전통에서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가령, 벤 존슨(Ben Jonson)은 “펜스허스트(To Penshurst)”에서 장원의 풍광을 묘사하면서 관용과 사랑으로 넘치는 영주와 소작인간의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읽어냈고, 알렉산더 포우프(Alexander Pope)는 “윈저숲(Windsor-Forest)”에서 영국왕조의 흥망성쇠를 노래했다. 워즈워스의 처녀작인 『저녁산책』에서도 18 세기말의 감상주의문학에 전형적인 “우울(Melancholy)”의 정서가 자연적 풍경 속에 깊이 각인되어 묘사된다.

그러나 “틴턴사원”에서 워즈워스가 읽어내는 자연은 단지 인간적 삶과 인간적 정서가 투사되는 하나의 배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좀더 적극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도덕적 힘이다.

이 아름다운 형상들은

오래 떠난 동안 내 곁에 존재하지 않았다.

장님의 눈에 풍경이 존재하지 않듯.

그러나 가끔씩 녹초가 되어 있을 때,

나는 그 형상들 덕택에 감미로운 흥분을 느꼈다.

핏줄을 타고, 심장까지 짜릿하게 느껴지는,  
그리하여 나의 더욱 순결한 마음으로까지 흘러 들어가,  
그것을 조용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흥분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희미한 쾌락의 느낌도 있었다. 착한 사람의 삶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부분, 그의 사소하고, 이름없는, 기억할 수 없는  
친절과 사랑의 행동들에 적잖이 영향을 줬을 그런 느낌을.

(22-35 행)

워즈워스가 자연을 읽는 법은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자체로 한껏 즐기면서 그러한 느낌이 갖는 도덕적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틴턴사원 앞에 선 워즈워스에게는 자연에 대한 미학적 인식은 도덕적 각성과 동일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도덕적 각성은 1798년 7월 13일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와이계곡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촉발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특정한 물리적 시공을 초월하여 “틴턴사원”이라는 자서전적 서사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했다. 즉 워즈워스가 경험한 자연의 아름다움은 과거에 속한 것이지만, 그 도덕적 의미는 아름다움에 대한 물리적 감각이 제거된 회상의 공간, 즉 현재적인 시적 서술의 공간에서 인식된다. 이것은 시가 “고요속에 회상되는(recollected in tranquillity)” 정서에서 비롯된다는 「서문」의 시론과도 긴밀하게 부합되는 것이면서, 결국 미학적 인식을 도덕적 각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시인의 시쓰기 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따라서 현재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와이계곡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각적 경험을 시적 이미지로 형상화할 때 시인이 체험하는 예술적 경험이며, 이러한 이차적인 경험은 “틴턴사원”에서 독자들이 목격하는 낭만적 초월의 경험의 진정한 본질이다.

나는 그것들에 또 다른 것들을 빚졌을지도 모른다.

더 장엄한 측면을 가진 어떤 것, 그 축복의 기분,

그런 기분을 가지면 신비로움의 부담이,

이 모든 알 수 없는 세상의 무게,

그 무겁고 지긋지긋한 무게가 가벼워지는,



그런 조용하고 축복의 기분,  
그런 기분을 가지면 애정이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마침내 우리 육신의 몸체가 내쉬는 숨결이,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피조차도 거의 멈추고 몸은 잠이 든 채,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  
조화의 힘과 기쁨의 심오한 힘으로 고요해진 눈으로,  
우리는 사물의 생명을 꿰뚫어 본다.

(34-48 행)

자연의 아름다운 형상이 가져다주는 축복의 기분은 또 다른 종류의 감각적 경험과 함께 도덕적  
각성 뿐 만이 아니라 세속에 찌들린 마음의 짐을 덜어주며 진리에 대한 개안의 체험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여기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미리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일종의 “열반”의 체험은 이 시 안에서도 최종적이거나  
영속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워즈워스는 위 인용문 바로 다음에 이것이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며  
초월적 체험의 한계를 스스로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워즈워스로 하여금 좀 더 큰  
맥락에서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자신 삶의 의미를 좀더 체계적인 개인사  
속에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58-85 행). 이러한 자전적 서술은 다시 한번 자연을 “내  
마음의 인도자와 보호자, 내 모든 도덕적 존재의 영혼”이라 규정하며 위기의식과 회의주의를  
극복하지만, 이러한 신념은 112 행부터 시작되는 소위 도로시 관련대목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면(if I were not thus taught)”이라는 가정은 시인의 성장을  
주도하는 자연에 대한 시인 자신의 믿음을 또 다시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도로시라는 실제 인물의 등장은 자연이라는 초인간적 존재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자아의 성장과 그에 따르는 초월적 경험들이 시적 세계의 외부에서도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자연의 섭리와 시인의 시적 상상력 말고도 그것을 현실에서 떠받칠 만한 인간적  
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워즈워스가 호반에서 싸우디와 코울리지  
등과 함께 이루었던 공동체는 이러한 인간적 유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워즈워스의  
시적 자아의 감각적 체험이 하나의 개인사로 완성되려면 과거와 현재 뿐 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포괄하는 하나의 성장의 역사로서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로시는 워즈워스의 과거의 자아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며, 이러한 도로시를 통해 워즈워스의 시적 성장의 신화는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서전으로서는 담기 불가능한 자신의 사후의 미래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도로시에게 똑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워즈워스가 가장 사적인 경험을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한 개인의 성장사가 그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코울리지- “늙은 수부의 노래(The Rime of Ancient Mariner)”와 낭만적 상상력

워즈워스가 자연과의 관련 하에서 자신의 시적 영혼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자서전의 형태로 낭만적 상상력의 역할과 기능을 예증했다면, 코울리지는 자신의 낭만주의적 사유와 창조행위를 초자연적 경험을 통해서 규정하려고 했다. 그의 『문학평전』에 의하면 그것은 『서정담시집』을 함께 구상하면서 두 시인이 합의한 의도적인 역할분담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적인 합의가 아니라도, 워즈워스의 감수성이 가장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진실을 추론하는 귀납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코울리지는 가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로부터 특정한 진실을 발견해 내는 연역적 사고의 소유자였다. 코울리지가 가장 위대한 철학시를 쓸 책임자로 자신보다 워즈워스를 지목한 것은 단순한 겸손의 수사가 아니라 그러한 기질적 차이를 알고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코울리지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시인으로서보다는 워즈워스에게 “하나의 생 철학”(One Life Philosophy)을 제공한 이념적 스승으로서, 독일관념철학을 도입한 19 세기의 대표적 사상가로서 더 의미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코울리지 역시 낭만적 상상력이 진리를 인식하는 가장 우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시인을 그러한 정신적 능력의 소유자로 표상한 것에서는 워즈워스와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그러한 낭만적 상상력이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러한 관련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으로 체험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코울리지가 『서정담시집』에 내놓은 시 중 가장 비중있는 작품인 “늙은 수부의 노래”는 이러한 코울리지의 차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시는 한 늙은 수부가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한 하객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늙은 수부였다.

그는 셋 중 하나를 붙잡았다.

--그대의 긴 잿빛 수염과 빛나는 눈으로

나를 붙잡는 이유가 뭐요?

신부집 문이 활짝 열려있고,

나는 가까운 친척이래오.

손님들은 다 왔고, 잔치는 시작됐소.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지 않소.

그는 강마른 손으로 하객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배가 있었소.

이거 봐요! 수염 난 바보 같으니라고, 손 치우란 말이요!

그러자 그는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의 빛나는 눈으로 여전히 하객을 붙잡았다.

결혼 하객은 가만히 서서,

세 살 먹은 어린애처럼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수부는 뜻을 이룬 것이다.(1-16)

이 시의 화자인 늙은 수부는 처음부터 보통 사람의 일상적 경험을 훨씬 넘어서 있는 존재이며,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하객으로 설정된 청자는 일상의 세계에 속한 가장 평범한 사람의 전형인데, 이 둘 사이의 경험과 인식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이 시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두 주체, 즉 화자와 청자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과 소외감은 시의 출발점에서 극적으로 조명되는데, 시인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과제는 이렇듯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을 화자의 이야기로써 연결하는 것이었다. 코울리지가 의도하는 이야기는 수부의 경험을 상상적으로 재현한 것이고, 이러한 재현된 경험의 효력은 청자로 하여금 애당초 갖고 있던 두려움과 적개심을 극복하고 수부의 경험과 그것이 가져온 수부의 변화를 수긍하고 공감하게 만든다. 이것은 시를 통한

진리의 인식, 그리고 시를 통한 정신의 개혁이라는 낭만주의의 계몽적 이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진리를 인식하는 체험을 워즈워스는 끊임없이 자연적 대상물 속에서의 현실적 경험으로 환치하여 재현하려고 노력한 반면 코울리지는 말로 설명되기 어려운 신비로운 체험 자체를 신비로운 체험 자체로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코울리지가 독자에게 “불신을 기꺼이 중지해 주기(that 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인 것이다.

워즈워스의 경우에도 자연이 가져다 주었다는 그 성숙한 깨달음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코울리지가 늙은 수부를 통해서 재현하는 신비의 체험은 인과관계의 설정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부조리한 행동들로 일관되어 있다. 수부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된 그의 ‘원죄’는 뱃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영혼이라고 간주되는 알바트로스(Albatross)를 싸죽인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는 아무런 외부적 동기도 논리적 이유도 없다. 수부는 마치 운명처럼 그 새를 쏘아 떨어뜨리고 수부를 태운 배는 저주를 받아 아무런 움직임 없는 대양에 갇히게 된다. 선원들은 하나 둘 쓰러져 귀신이 되어버리고, 수부는 죽지도 못하고 “죽음 속의 삶(Life-In-Death)” 속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시련을 체험한다. 일상의 세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악한 영혼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수부는 악몽과도 같은 정신분열적 상태를 견뎌내는데, 그 때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의 참회와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뱀에 대한 무의식적 축복이었다.

배의 그림자 너머로

나는 물뱀들을 보았다.

그들은 하얗게 빛나는 궤도를 그리며 움직였고,

그들이 몸을 일으키면 요정의 빛이

하얗게 부서지며 떨어졌다.

배의 그림자 안에서

나는 그들의 풍성한 옷차림을 보았다.

푸르고, 번들거리는 초록빛, 그리고 벨벳 같은 검은 색

그들은 따리를 틀고 헤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모든 궤도는

금빛 화염으로 번쩍거렸다.

오 행복한 살아있는 것들이여! 어떠한 말도

그들의 아름다움을 증언할 수 없다.

사랑의 샘이 내 가슴에서 용솨음쳤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들을 축복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시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목에서는 걸려있던 알바트로스가 떨어져,

마치 납덩이처럼 바다 속으로 잠겨버렸다.(272-291)

알바트로스를 쏘았던 것이 수부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듯이 “뱀”에 대한 축복 역시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었다. “뱀”을 축복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되찾는다는 설정은 당시로서도 아슬아슬한 아이러니였는데, 알바트로스를 쏜 것이 왜 저주의 이유가 되는지, 또 “뱀”의 아름다움을 인식한 것이 왜 구원의 계기가 되는지, 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타락인지 수부의 이야기에서도, 혹은 시의 본문 옆에 붙은 코올리지의 해설(Gloss)에서도 분명하게 제시되어있지 않다. 수부의 이야기의 표면적인 줄거리는 인간의 운명적인 타락과 시련,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규정한 성서적인 역사와 유사한 타락과 구원의 구조를 가진 듯 하지만 구원의 계기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참회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뱀”이 가진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부의 이야기는 기독교적 고해성사의 의미를 넘어선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뱀”의 아름다움을 알아버린 수부가 아무리 안전한 일상의 세계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귀향 이후에도 수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저주”는 영원히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든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마치 밤처럼 이곳 저곳을 떠돈다.

나는 이상한 말솨씨를 얻게 되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곧바로

그가 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가르친다.(586-590)

수부의 “이야기”로 “가르침”을 받은 청자 결혼식 하객은 마치 심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생각에 잠기고 다음날 아침에는 “더 슬프고, 더 현명한 사람”(622)이 된다는 것이다. 무당에게 신이 내리듯 일련의 극심한 육체적이고도 정신적인 시련을 통하여 수부는 “이상한 말솜씨”를 가진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자신도 논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다른 세계의 지혜를 이쪽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에서 코울리지가 더 의미있게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부의 이야기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가 인간의 의식에 작용하는 방식과 그 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매개하는 수부라는 시적 화자의 의식이다. 결국 코울리지가 맞닥뜨리는 것은 곧 시적 상상력으로 진리와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낭만적 시인의 의식, 즉 자기 자신의 의식이며, 이것은 “늙은 수부의 노래”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적 자화상으로 읽을 수 있는 이유이다.

“늙은 수부의 노래”를 논의하면서 흔히 간과하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지리상의 발견이후 서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탐험기 내지 항해록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먼 오지에 혼자 떨어져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모험과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작가들의 정치적 이상주의나 간접적인 사회적 비판을 담아내는데 흔히 쓰였던 장치였는데, 가령,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나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여행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늙은 수부의 노래”를 쓰기 불과 2-3 년전에 미국의 써스케하나로 떠나는 유토피아 공동체 운동을 벌였던 코울리지가 이러한 장치를 채용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인데, 흔히 아편복용과 관련된 악몽이나 낭만적 상상력에 대한 은유, 고딕적 감수성과 초자연적 현실인식 등과 관련되어 해석되는 이 시가 『유토피아』나 『걸리버여행기』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코울리지의 정치적 이상주의와 비판적 사회의식이 여전히 이 시를 구조적으로 떠받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이상주의와 사회의식이 풍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낭만적 상상력과 그것을 매개하는 창조적 시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계몽적 교육의 기능을 통해 관철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뜻에서 “늙은 수부의 노래”는 코울리지의 창조적 이야기꾼으로서의 자기규정일 뿐만 아니라 급진적 정치논설과 유토피아 운동으로 표출되었던 정치적 이상주의를 문학적 형식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참고문헌

Stephen Gill, *William Wordsworth: A Life*, Oxford: Clarendon, 1989. 한 권으로 된 비교적 간결한 워즈워스 전기로서 최근의 연구성과를 담고 있으며, 세세한 전기적 사실보다는 작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실들이 학문적으로 타당하게 분석되어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연구서.

Richard Holms, *Coleridge: Early Visions*, London: Hodder & Stoughton, 1989. 최근에 나온 코울리지 전기. 1804 년 코울리지가 Malta 로 요양을 갈 때까지의 초기 경력을 중점적으로 다룬 전기로서 워즈워스와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편리한 연구서.

Patrick Campbell, *Wordsworth and Coleridge: Lyrical Ballads: Critical Perspectives*, London: Macmillan, 1991. 서정담시집과 관련된 최근의 비평적 성과를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집약하여 소개한 연구지침서.

Nicholas Roe, *Wordsworth and Coleridge: The Radical Years*, Oxford: Oxford UP, 1988. 1790 년대의 워즈워스와 코울리지의 정치적 행적과 그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

Mary Jacobus, *Tradition and Experiment in Wordsworth's Lyrical Ballads, 1798*, Oxford: Clarendon, 1976. 서정담시집의 실험적 성격을 18 세기적 전통과의 연관하에서 설명한 연구서.

E.P. Thompson, *The Romantics: England in a Revolutionary Age*, New York: The New Press, 1997. 1790 년대 워즈워스와 코울리지의 정치적 경력과 시대상황을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시켜 분석한 사학자 Thompson 의 글모음집. 여기에는 "Disenchantment or Default? A Lay Sermon"이라는 워즈워스와 코울리지의 정치적 "변절"을 실증적으로 탐구한 고전적인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